

전남도의회 의장선거 당내 경선 후보 선출

부의장·상임위원장도 함께 경선기로...“다수당 횡포” 비난

전남도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둔 가운데 의회의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당내 경선을 통해 단독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또 의장과 함께 부의장(2명)과 상임위원장(7명)까지 경선을 통해 선출하기로 했다.

당내 경선과 관련, 민생당·정의당·무소속 등 의회 내 소수 정당 의원들과 민주당 내에서도 소수당을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이 결정돼 비난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들은 2일 오전 11시30분 도의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도의회 의장선거 등에 나설 민주당의 단독 후보를 뽑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의장선거 후보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후보 등록 등 경선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경선에 나서는 후보 측 인사들과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1~2명이 참여하며, 후보 경선은 오는 18일 이뤄질 전망이다.

후보 경선에 나설 의원으로는 3선의 김

한중 의원, 재선 김기태 의원, 초선 이철 의원 등 3명으로 알려져 있다. 전남도의회 의장단 투표는 오는 30일 본회의장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의 당내 경선은 그동안 의회 안팎에서 소수당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을 사왔다.

이로 인해 지난달 22일 1차 의총을 열었으나 “당내 후보를 결정, 본선에 단독후보를 내자”는 안과 “본회의장에서 바로 선출하자”는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2차 의총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전남도의회는 민주당 53명·민생당 2명·정의당 2명·무소속 1명으로 이뤄져, 절대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본선 전 단독 후보를 뽑으면 소수 정당 소속 의원들의 표는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신임 의장단을 뽑는 것이 원칙인데 사전에 다수당이 단독후보를 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환 기자



선별진료소서 열 재는 어린이

1일 광주 북구청 공영주차장 4층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한 어린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등교와 등원이 시작되면서 북구보건소는 선별진료소 방문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기존 드라이브 스루방식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워킹스투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여수 ‘돌산갓’ 인기 상한가...매출액 · 63% ↑

지역경제 효자노릇 ‘톡톡’

생갓 품귀 현상에 가격 ↑

여수지역 대표 특산품인 ‘돌산갓’의 생산량과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며 지역경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2일 여수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세계

적으로 유행하던 2월부터 5월까지 돌산갓 생산량은 9742톤으로, 지난해 생산량 8791톤보다 951톤(11%)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84억6000만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52억원보다 32억6000만원(63%)이 늘었다.

매출 단가도 4개월 평균 1kg당 877원으로, 지난해 평균 591원보다 48%가 높았다.

시는 매출액 상승의 원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따른 가정에서의 갓김치의 주문이 평년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한 것을 꼽았다.

이로 인해 생갓의 품귀 현상이 빚어지며 높은 가격이 형성됐고, 품질 갓 재배면적 확대와 생산량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해남 방춘·진도 소앵무리,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전남도, 생산·가공·유통 등 시설·장비 우선 지원

전남도는 유기농업을 이끈 해남 방춘마을과 진도 소앵무리마을 등 2개 마을을 올해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했다.

2일 도에 따르면 유기농 생태마을은 경지면적 20ha, 구성원 20호 이상의 규모화된 마을 중 친환경인증 면적이 경지면적의 50% 이상, 유기농 인증면적이 경지면적의 20% 이상인 친환경실천의지가 강한 마을이다.

도는 지난 4월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평가를 거쳐 2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해남 방춘마을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이 67ha로 경지면적(82ha) 대비 친환경 인증 면적 비율이 82%(유기농 52%) 이상이다. 단지·규모화된 농지에 보리와 밀, 양배추, 밤호박 등 벼 이외 품목에 대해 다

양한 인증을 취득했다.

또 진도 소앵무리마을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은 74ha로 경지면적(94ha) 대비 유기농인증 면적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협동심이 강한 마을로 알려졌다. 미스트롯 송가인의 출신 마을로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 등 농가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엔 지정된 2개 마을에 지정서를 교부하고 내년도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개소당 5억 원) 신청자격을 부여, 유기농업 확대·육성에 필요한 생산·가공·유통·체협 관련 시설·장비 등을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영암군, 대봉감 농가에 기능성농자재 지원

오는 12일까지 추가 접수...전동평 군수 “농가경영부담 경감”

전남 영암군은 12일까지 지역 특산품인 대봉감의 기능성 농자재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저온 피해로 인한 대봉감나무의 생육장애 완화를 위해 칼슘제 등 기능성 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에 따르면 겨울 날씨가 따뜻해 새순이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빨리 나온 반면, 4월에는 5~6일 급격하게 하강된 영하의 기온이 이어지면서 새순이 얼어 죽는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대봉감 주산지인 금정면은 산이 병

풍처럼 둘러싸인 분지 지형으로 찬 공기가 갇히면서 더 큰 피해를 줬다.

군은 예비비를 활용해 저온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대봉감을 재배하고 있는 군민 모두에게 농자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저온 피해까지 겹쳐 대봉감을 재배하는 농가 대부분이 큰 타격을 받았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내년 생산량 증대를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소통하는 대한민국

그 중심에 1등 보성군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

보성녹차

수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

벌교꼬막

전국 최대 주산지

보성키위

보성물

집에서 청정 보성의 우수농특산물을 만나보세요!

mall.boseong.go.kr 보성물 검색

유튜브 구독하고
댓글 달면 보성녹차를
얻을 수 있다고!

보성군 대표 SNS 가입하기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eenboseong/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boseonglove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greenboseong/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N2Y1YUYkSbhc69PpCpYQ
UCN2Y1YUYkSbhc69PpCpYQ

※ 매달 추첨을 통해 보성군 페이스북에 당첨자 게시를 합니다.